

New Leader X.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9: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은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즉,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 ㄱ) 절대적 존재 : 예수님이 절대적 존재로 계시는 사람이 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 되는 사람이다.
- ㄴ) 상대적 존재 :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은혜받은 후, 어려울 때-예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절대성도 변한다.
- ㄷ) 부분적 존재 : 상황적인 부분과 교집합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인정할 수 있는 존재, 필요한 존재 정도 된다.
- ㄹ) 추상적 존재 : 말 그대로 추상적이지 않다. 내 삶과 상황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존재이다. 존재 정도의 인식이다. (종교인)

2. 하나님에 대한 불신 -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명이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 '길, 진리, 생명'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죄인 된 사람'의 불신 때문이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죄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존재에 대한 문제이다. 그 결과가 불신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할 수 없다. '아버지'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인 '신랑'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다.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다.

[창세기 3:1, 5] 1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다. 목적이 명확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말을 의심하는 것은 결국 말의 대상인 존재의 의심이다). 마귀의 거짓말은 창세기 1:1절에 대한 반박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라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우주로 대변되는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다. 선악과 라는 열매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1절을 틀어 버렸다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고 여길 수 있게 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을 뒤집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지워버린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고통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을까? 결국 끝이 나겠지?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내 부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끝이 없는 질문을 만들었다.

3. 의심의 존재, 두려움의 존재

죄인 된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즉,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본질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답은 '함께 한다'이다.

* '탕자의 비유' -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두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함께함'이다.

*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

[마태복음 1: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7:22-23] 22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기도는 '함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주소서" 이다. 함께라는 '공동체'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4.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결국 신앙은 '함께'를 깨닫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압살롬 - 혼자 하겠다는 것, 죄의 뿌리). 신부는 신랑과 함께하는 존재,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1) 복음

[마태복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긴장의 연속이다.

(2) 긴장된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긴장감'이 있다. 긴장감은 무엇인가? 감정과 생각이 고무줄이 팽창한 것처럼 타이트한 상태이다. 왜 긴장감이 있는가? 두려움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을 보라.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긴장감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긴장감이 지속되면 지치고 힘들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안정감'을 말한다. 안정감은 '존재'의 영역에서 이해되는 단어이다. 즉,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나타나야 해결된다는 말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3) 안심하라

예수님의 사역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 번 기록되어 있다.

ㄱ) 풍랑속의 제자

[마태복음 14: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ㄴ) 혈루증 여인

[마태복음 9: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ㄷ)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마태복음 9: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풍랑 속의 제자는 풍랑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연약함으로 두려워했다. 혈루증,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과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대답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이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중풍병과 혈루증을 고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신다. 나의 상태를 보신다. 예수님에게는 풍랑,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나'이다.

(4) 진정한 리더

고통의 때, 진정한 리더는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리더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계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다. 존재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많다.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안심하라'(달세오) -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 너는 이 긴장감 속에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는 뜻이다. 오늘 긴장감과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신 예수님을 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안심과 안정감이 모든 긴장된 공기를 변화시킨다. '용기를 주는 메시지, 격려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하자'